

最優秀賞 / 江原道

새마을技術奉仕團

手編物
技術指導에
의한

婦女子들의
生活改善

專門委員 : 韓 玉 洙
(강원대 사대교수)

指導者 : 강 속 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고한리)

1. 관련마을 현황

태백지구는 영월, 정선, 삼척군등 3개군을 접한 산악지대며 본 마을은 강원도 남단, 태백산, 소백산, 함백산등 이른바 삼백산록에 위치한 산협, 협곡에 급격하게 발달한 광산도시군 즉 장성읍, 황지읍, 상동읍과 사북읍 중의 고한리이다. 이곳 사북읍 고한리는 장년기 준령으로 덮인 산세가 말하듯이 농경지는 거의 없고 첩첩이 무질서하게 파헤친 흑맥에 뒤덮인 강물마저 검은 곳이다.

60년대 산업도로의 개통으로 철도편은 있으나 아무리 인접해 있는 곳이라도 교통망은 원시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급격히 산업도시로 발전은 하였으나 연륜이 짧고 생산물도 거의 없는 산악지대이고 보니 원주민은 거의 없고 광부가족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광업소 역시 도계나 장성의 石公보다는 민영탄광인 삼척탄좌를 비롯한 수개의 군소광업소의 소재지로 광부들의 생활여건도 좋은편은 못된다.

광부생활이 일생의 직업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영구적인 안정성이 없고 떠돌이 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가는 교통의 불편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수입에 비하여 소비경향이 매우 높다.

매월 현물로 양곡과 연탄을 지급받으며 약간의 현금은 이미 예정된 맞장부형식의 외상값 처리와 월부금의 지불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금이 귀하고 생활상이 극히 비정상적인 곳이다.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라서 개성이 두드러지고 이동이 빈번하여 인보활동이나 가족관계·인간관계 등의 인정이 메마른 곳이기도 하다.

고한리의 인구현황을 보면,

남 자	16,748명
여 자	15,061명
전 체	31,809명
세 대 수	6,365세대
광 부 수	5,973명

(80년 6월말 현재)

평균 가족수는 5 인이내며 세대수로 미루어 보아 94%가 광부가족임을 알 수 있다.

근무업종별 수입실태를 보면 선산부, 후산부, 기계공, 보안원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79년말 현재 세대당 15만원선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광부들의 근무시간은 甲·乙·丙番으로 8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도 비번 광부가 많고 그들은 대부분 피로를 술과 담배 기타 여건으로 풀기때문에 이에 따른 후유증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광부사택이 집단 응거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상 또는 경제형편상 각 개인들의 私生活이 보장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점도 허다하다.

주부들의 가정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하여 여가선용 문제가 큰 과제로 느끼게 되었다.

2. 동기 및 목적

7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수출산업중에서 특히 스웨터 등의 섬유산업은 팔목할 만큼 신장되어 갔다.

그 중에 여러가지 각도로 결들어 들어오기 시작한 가내 수공업은 기술부족과 가치관의 차이의 허다한 진통을 겪으면서 그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생활능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외면하고 子女들 때문에 맞벌이는 할 수 없는 생계에 쫓달리는 저소득층 여성들만이 관심을 가질뿐 체제도 지도방법도 없이 범람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에 가정학을 전공하면서 여러가지 수공업에 관심이 있던 본인은 우연한 기회에 수편물학원에 들고 온 귀바늘뜨기 덧버선 백여켤레분의

실을 받아 이웃의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도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기능이 전혀 없고 치수에 대한 인식, 품질문제등 여러모로 차질이 생겨서 본의아닌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굴복하지 않은 본인은 이 지역에 기능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가족제도가 점차로 핵가족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가족관계가 단순해지고 衣·食·住 生活이 便利해 짐에 따라서 주부들의 가정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점차로 모든 기능이 사회화되다 보니 여성으로서의 자각,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보람조차도 상실되어가며 모든것이 기계화되고 사회화된 가운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풍토가 토착화되는 경향이 많아졌다. 따라서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무엇인가 목적있는 시간의 아까움을 알고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의 귀중함의 체험을 실감하고 다소곳이 앉아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커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이 즐겨 집안일을 협조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때 한 사회에 나아가서 국가가 번창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강원도의 여유있는 여성들에게도 만드는 기쁨과 꾸준히 노력하는 인내심과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시도한 것이다.

무역회사에서 새마을공장을 통하여 임가공임을 받는 스웨터 편직기능을 습득하여 본격적으로 부너지지도자 육성교육을 시작하였다.

한지역마다 올바른 지도자 한명씩만 육성되면 그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번져나갈 수 있었 산넘어 물건너 농촌으로, 어촌으로 도시로 광산촌으로, 그 인구가 이제는 수천명에 이르고 한달 수출량도 수만장에 달하며 보이지 않게 수출증대에 이바지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또한 앞으로 보다 더 가속화되어 가는 현상을 눈여겨 보며 한울 한울의 정성으로 각지에서 모여진 보람이 규격이 일정한 상품으로 세계각국에 보급되는 것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도록 인간의 능력의 무한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복읍 고한리 마을과 새마을 기술봉사단의 일원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기술지도에 착수하였다.

3. 지도방법 및 내용

1 차로 새마을 기술봉사단과 도당국의 주선으로 1976년 광업소와 군의 협조를 얻어 마을 회관에 주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여성으로서의 가치관 정립문제등 다각도로 대화를 해보았으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의구심과 불신감, 또는 반발심, 자기 본위적인 개인주의가 깊숙히 도사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쉽게 수긍될 리는 없었다.

마침 교대 졸업생들중 미발령자가 많이 있을 때라 가정과 계통의 전공 선택을 했던 여선생 두명을 파견하여 약 일년 가깝게 상주시키면서 처음에는 무료로 실과 바늘을 주면서 흥미유발을 시켜 小品만들기 기능교육부터 실시하였다.

차츰 10명에서 20명으로 그 수가 늘어가면서 일개월만에 100% Wool의 고급 스웨터 작업을 시켜 보았다.

가) 실과 바늘에 따르는 짜임새의 차

나) 여러가지 수평물의 부호 익히기

다) 치수의 조정과 품질, 약속기일 엄수문제 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기술에 능한 강숙녀 지도자를 발굴하여 책임을 맡겼다.

빠른 시간내에 집안일을 끝내고 짬짬이 하는 일이라 능숙치가 못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내 동명이 치고 가버리고 또 새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는 동안 작업을 시작한지 일개월만에 20명이 60벌 정도의 완성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완성품조차 검은 때가 너무 많고 차질이 생겨 불합격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완성품대로의 공임을 지불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기능을 익혀주고 하는 동안

그들 개인의 손에 10,000원 이상의 현금이 쥐여지자 그 기뻐하는 모습을 어찌 다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때야 비로소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주는데 대한 고마움과 자기가 고생끝에 얻은 결실의 보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주변 사택에서도 서로를 찾아와서 뜻있는 주부들을 규합하여 이제는 사복읍 황지등에 까지 확대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질화된 책임감 부족과 약속기일 마감이 박두할 수록 급하면 약점을 이용하는 타성이 번져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을수가 없었지만 차츰 현금이 일가구당 몇만원씩 손에 쥐어지자 사방으러 꾸러다니던 습성이 없어지고 간단한 부식대와 아이들의 용돈정도는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덧 수년간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고한리 마을만도 10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늘어나고 주변에 까지 단지조성이 되어 여러가지 가도로 여가선용과 가내부업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부호와 구두만으로도 수십명이 짠 것이 모두 일정한 치수와 짜임새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것이다.

직업량이 일정치 않고 작업내용이 자주 바뀌는 고충은 있으나 그런대로 유지되어가는 실정이다.

현재는 공동기금 조성을 위한 저축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한 목표달성이 되면 생필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양재 등의 기술을 습득시켜 값비싼 외상 월 부구매법을 배제하고 모든것을 리단위로 조직화시킬 수 있는데 까지 지도할 계획이며 그들과 더불어 실천계획도 수립되었다.

참여가구가 120호 이상이며 월평균 호당 소득은 3만원 정도인데 이동인구가 많고 가정사정등 작업량에 차질이 때때로 있어 팔목할 만한 성장율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별다른 특수수입이 없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수입이 아닐 수 없다.

4. 지도효과 및 전망

가. 지도 효과

수편물 기술지도의 실시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1) 하루하루의 일과중 뚜렷한 목표가 있고 보니 시간의 아까움을 피부로 느낀 것이다.

따라서 독일, 일본의 여성 못지않게 이웃집에를 가던, 기차를 타던, 작업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가를 선용한다.

(2) 적은 소득이지만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만큼 귀중하고 또한 남편의 수입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예전과 달리 절약하는 생활풍조가 생겼다.

(3) 주부의 생활이 부지런해지자 시부모 또는 어린아이들 까지도 실을 감아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비번의 남편까지도 협조를 한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은데 대한 반발로 실을 내던지고 화를 내던 가정의 수도 많았으나 점차 선의로 인식되어 가족관계가 원만하여 졌다.

(4) 이웃간에 인보活動이 이루어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共同의식이 생긴다.

(5) 능력에 따른 마감기일을 지킬 줄 아는 인식이 생기며 책임을 완수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6) 따라서 부지런해지고 서로 바쁘다보니 불평이 없어져서 단란한 가정으로의 탈바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 자포자기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복돋아 줄 수 있었다.

(8) 이러한 일들은 취미생활로 변화하여 일단 기술을 습득하면 아무리 가족이 반대를 하여도 떼어버릴 수가 없게 된다.

(9) 봉급대신 받는 쌀과 연탄외에 이미 비싸게 사던 월부상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10) 편리한 가정용품을 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생활개선이 이루어졌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여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산 증거가 제시된 것이다.

나. 전 망

수편물의 기술지도 결과로 보아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보인다.

(1) 유투파동에 반비례하여 세계인구 저마다의 옷의 부피가 두꺼워짐에 따라 수편물 제품만이 그 특유의 재질감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소요량이 증가될 것이다.

(2) 질적으로나 임가공임으로 보나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상태에 있는 중공·소련 등 공산권 국가의 기능이 우수해 지기 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아무 부족기구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일의 수급대책이 한시 바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불과 몇주일의 기능습득으로 가능하기에 그 효용가치가 크다.

(4) 이러한 기술 개발조직은 행정체계나 부녀조직보다 의사전달과 집단능력 확보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5) 소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을금고 등에 일정액의 불입을 권장함으로써 근검절약, 저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6) 공동자본을 형성 유투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값싼 생활필수품 구입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7) 이웃끼리의 인보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때 골목유치원, 어린이집, 골목도서관, 공동작업장, 공동목욕탕, 소비자보호운동 등 생활개선방법의 실천이 가능하다.

(8) 비번광부들의 여가선용방법이 달라지고 여러가지 광산촌 특유의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가 정화될 수 있을 때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말은 바 책임에 몰두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9) 이렇게만 되면 子女교육문제, 영구적인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되찾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개발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이 사업을 본격적인 새마을 부녀사업으로 받아들여 체계있는 조직과 정책으로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 소득증대, 생활개선에 밀바탕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수편물지도자 강숙녀 여사의 숨은 공로를 다시한 번 치하하며 그가 있었기에 오늘이 고한리 수편물 그룹이 육성되었음을 감사드린다.